



SOOGANG ECONOMICS

NEWSLETTER

Fall 2025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발행인: 박정수 | 편집인: 김민경 | 편집진: 정원경(총괄), 행정팀 | http://econ.sogang.ac.kr

FOCUS NEWS

본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상반기 국내정책세미나 성료



(좌측부터) 본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손성빈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이철인 경제학부 교수, 본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전현배 원장, 박정수 경제대학장, 홍익대학교 박명호 경제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LT 학부 교수, 본교 이윤수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경제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11월 5일(수) 게페르트 남덕우경제관 514호에서 「한국 재정, 어디까지 괜찮을까: 선진국 위기에서 얻는 경고와 통찰」을 주제로 상반기 국내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일본이 고령화와 저성장 속에서 겪고 있는 재정 팽창과 사회적 저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는 본교 경제대학 허준영 교수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가 맡았다. 박명호 교수는 「한국의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한 이해와 한국-프랑스-일본의 재정상황 비교」를

주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를 지출과 세수 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허준영 교수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발표를 통해 두 나라의 재정 위기와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강유덕 교수는 프랑스의 정치·사회 상황을 설명하며 감세 정책의 재검토, 부유세의 부분적 복원, 지속 가능한 복지개혁, 혁신 기반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 선임연구원은 장·단기 재정건전성을 구분해 보며, 장기 재정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교 경제대학 이윤수 교수는 미래 재정 여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구조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현배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일본의 재정 문제 사례를 통해 우리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 베트남국립대학교 경제대학교(VNU UEB)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 성료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 베트남 국립대학교 경제대학교(하노이) 간담회)

서강대학교 경제대학과 베트남국립대학교 하노이 경제대학교(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이하 VNU-UEB)는 지난 10월 29일(화), 서강대학교 GN관 511호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양교 간 학문 교류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에서는 박정수 학장, 주하연 학과장, 유선기 경제대학원 G-Enh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전현배

교수가 참석하였다. VNU-UEB 측에서는 응우옌 티 투 호아이(Prof. Dr. Nguyễn Thị Thu Hoài) 교수, 다오 까므 투이(Dr. Đào Cẩm Thuỷ) 박사, 응우옌 티 흐엉 란(Dr. Nguyễn Thị Hương Lan) 교수를 포함한 29명의 대표단이 방문하였다. 응우옌 티 투 호아이 교수는 베트남 교육부 교육 혁신 및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오 까므 투이 박사는 VNU-UEB 경영대학원 전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베트남 고등교육과 경영교육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사는 박정수 학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의 교육·연구 현황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

후 응우옌 티 투 호아이 교수의 인사말과 함께 VNU-UEB에 대한 소개 및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양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공식 프로그램 이후에는 양측 대표단 간 선물 교환과 기념촬영이 진행되었으며, 서강대학교 학생 홍보단 ‘하늬가람’의 안내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두 대학은 향후 학생·교원 교류,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경영 교육 분야 학문 공동체로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2025 제1회 연합 경제 학술제 EON 개최



〈2025 연합 경제 학술제 Economic Open Network의 참석자들〉

2025년도 제1회 연합 경제 학술제 ‘EON(Economic Open Network)’이 지난 10월 11일(토), 서강대학교 GN관 202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응용경제학회가 주관하고 성균관대학교·서강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제는 “학문을 통한 연대와 성장”을 주제로, 각 대학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모여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간 학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선 무대에는 총 여섯 팀이 참여해 학자금대출과 직업 선

택, 기상학적 지표와 외환시장 변동성, 기후 충격과 포트폴리오 이질성, 탈중앙화 금융과 국내 금융 주체의 대응, K-컬처 이벤트와 주가 및 체계적 리스크,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활용한 자산배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심사는 서강대학교 주하연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연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우진희 교수가 맡아 연구 설계, 방법론, 분석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평가하였다.

심사 결과, 성균관대학교 김도아 학생이 대상, 서강대학교 Quantifi Sogang 팀의 이정훈 학생이 최우수상을, 이화여자대학교 ‘제니와 주주들’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후에는 만찬과 다과 자리가 이어지며 참가자들이 서로의 연구 경험을 나누고 학문적 고민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제는 경제학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간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한국응용경제학회와 세 학교 학생회는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연구를 통해 경제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경제대학 박정수 학장, 제31회 통계의 날 ‘옥조근정훈장’ 수상



〈좌측 1번째〉경제대학 박정수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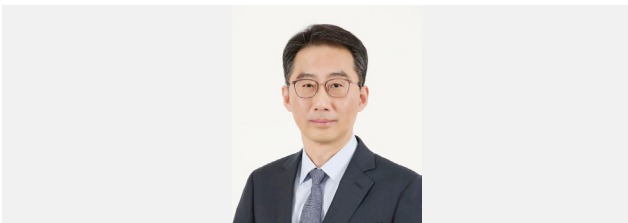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박정수 학장은 9월 1일(월) 정부대전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통계 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1995년 9월 1일 제정된 기념일로,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발점인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지정되었다.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한 정부 기념일로 격상되어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박정수 학장은 경제학 분야 전문가로서 학술 연구와 통계청 지표의 체계화 등을 통해 국가통계의 위상 강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014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DAC)를 서울 강북 지역 최초로 대학 내에 유치·설치·운영하였고, 2025년에는 기존 MDAC를 통계데이터센터(SDC)로 확대·개편하는 등 통계 인프라 구축과 확충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은 안형준 통계청장, 강기훈 한국통계학회 회장 등 통계 관련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박 학장의 훈장 수훈은 학계와 통계 행정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대학 전현배 교수, 제44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전현배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전현배 교수가 10월 16일(목)에 제44회 다산경제학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다산경제학상은 한국경제

신문이 1982년에 제정한 상으로, 우리나라 경제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학자와 연구자의 업적을 기리고 경제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권위 있는 학술상이다. 다산경제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서승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전현배 교수가 산업조직 및 기업동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기술(IT) 혁신과 규제가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 업적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학과 한정임·박인환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양현주), 한국관광학회 Best Paper Award 수상



〈(좌측부터) 본교 경제학과 한정임 박사과정생, 박인환 박사과정생, 양현주 경제대학 교수〉

본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한정임·박인환 학생(지도교수 양현주)이 지난 6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The 98th TOSOK International Tourism Conference - 2025 APEC International Tourism Conference」 일반논문(International) 세션에서 Best Paper Award(Third place)를 수상하였다.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25개국 2,500여 명의 관광 분야 연구자가 참가했으며, 일반논문

(International) 세션에서는 접수된 1,000편 가운데 52편이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상이 이루어졌다.

한정임·박인환 학생은 「The Economic Impacts of Convention Centers in South Korea」 논문에서 야간조도(Nighttime Light), 토지피복도(Land Cover Map) 데이터와 합성통제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해 컨벤션 센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계량적 접근과 정책적 시사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두 학생은 지역 인프라 개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과 이론적 확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학부 이준호(경제 20) 학생,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최우수상(외교부 장관상) 수상



〈우측 2번째〉시상식에 참여한 경제대학 이준호(경제 20) 학생

경제대학 이준호(경제 20) 학생이 외교부(산하기관 포함)가 주최한 「2025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SafetyCraft’ 팀으로 참가해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2023년부터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데이터 기반 신규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

문과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총 9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성, 인공지능(AI)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되었다.

이준호 학생이 기획 총괄로 참여한 ‘SafetyCraft’ 팀의 ‘SAFE GUARD’ 앱은 해외 여행 시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의 치안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구글맵 기반 안전 경로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준호 학생은 PM(Product Manager)으로서 앱의 UI·UX 설계, 서비스 기획,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 수상 팀에게는 외교부 추천을 바탕으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준호 학생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에서의 학회 활동과 캡스톤 디자인 수업 프로젝트 경험이 대회 준비에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범정부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경제학과 ‘금리사령부’ 팀, 한국은행 주최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대회서 동상 수상



〈좌측 2번째부터〉 임한이(경제21), 김학열(경제21), 이창현(경제22), 김성준(경제22) 학생

한국은행이 주관하는 「2025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 대회에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금리사령부’ 팀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금리사령부’ 팀은 경제학부 21학번 김학열·임한이 학생과 22학번 김성준·이창현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결선 및 시상식은 지난 8월 12일 한국은행 본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대학(학부)생에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을 모의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통화정책과 중앙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

되고 있는 대회이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129개 팀이 참여해 지역예심을 치렀고, 이 중 55개 팀이 지역예선에 진출하였다. ‘금리사령부’ 팀은 서울 지역예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결선에 올랐으며, 결선 무대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동향과 전망 자료를 토대로 8월 기준금리 결정 내용과 그 근거를 발표하고,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및 주요 부서장 등 4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질의에 응담하며 심사를 받았다.

‘금리사령부’ 팀은 “경제대학 이윤수 교수님의 거시경제학1 강의와 광노선 교수님의 금융경제학 강의가 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송의영 교수님, 남준우 교수님, 허준영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데 깊이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당 팀은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과 표상금을 수여받았으며,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성적우수자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 (성적최우수상, Dean's List Award, 김영훈-김영민 장학생 & 동문회 성적우수 장학생 장학증서)



〈2025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자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 단체사진〉

2025년 10월 28일(화) 오후 5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은 서강경제 리셉션홀(GN 511호)에서 「성적 최우수상 & Dean's List Award 및 동문회 성적우수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수 경제대학장, 주하연 경제학과장, 곽노선 교수, 안태현 교수, 이성원 교수를 비롯해 경제대학 총동문회에서 이철순 전 동문회장과 황인기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수상 학생들

을 축하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성적최우수상, Dean's List Award, 김영훈-김영민 장학생, 그리고 동문회 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가 수여되었다. 성적최우수상은 경제대학 성적 상위 1% 학생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한 학기 동안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노고를 기린다. Dean's List Award는 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동문회 성적우수 장학금은 Dean's List 수상자 중 3학기부터 7학기 재학생 가운데 성적 상위 각 2명에게 지급되는 학업 장려 장학금이다.

이와 함께 김영훈 장학금은 박사과정 수료생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김영민 장학금은 학부생의 학업을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 각각 수여되고 있다. 이번 수여식은 경제대학 구성원과 동문이 함께 모여 우수한 성과를 이룬 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학문적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5 경제인의 날



〈늦은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었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관련 인원들〉

지난 11월 7일(금) 오후 5시 30분,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4

층 김상수 카페 도서관에서 「2025 경제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올해 경제인의 날은 '경제대학 정기주주총회'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의 주요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경제인의 날은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동문, 교수진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대학의 대표 교류 행사로, 세대와 소속을 아우르는 네트워킹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경제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참석자들은 교내외 활동과 진로 경험을 공유하며 경제대학 구성원 간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제대학원, 2025 다시 듣는 명강의 - 정재식 교수님



〈9월 25일(목), 정재식 교수님의 강의 모습〉

지난 9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 301호 이승운 강의실에서는 경제대학원(야간대학원) 총동문회와 총원우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 다시 듣는 명강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제대학원 동문과 원우, 교수진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김진원 경제대학원 부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특강은 정재식 교수가 '실전! AI와 금융'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금융 산업과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향후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준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였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AI와 금

융의 융합이 가져올 기회와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경제대학원에서의 학업과 커리어 설계에 대한 영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학년도 하반기 경제대학원 학술호프데이



〈2025 9월 하반기 학술호프데이, 손성빈 교수님의 특강에 참석한 원우들〉

지난 2025년 9월 26일(금) 오후 7시, 서강대학교 계페르트 남덕우경제관(GN) 101호에서 경제대학원 주최로 「2025학년도 하반기 학술호프데이」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는 손성빈 교수의 특강으로 문을 열었다. 손 교수는 “코스피 5000시대, 현

실이 될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의 경제의 주요 흐름과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이에 대한 정책·시장 차원의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특강은 경제대학원 원우들과 교수진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과 토론이 활발히 이어지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참석자들은 외부 장소로 자리를 옮겨 호프데이를 이어갔다. 원우들과 교수진은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며 강의 내용과 연구 관심사를 공유하는 한편, 진로와 현장 경험에 대해서도 폭넓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대학원은 학업뿐만 아니라 원우들 간 친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호프데이 역시 경제대학원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대학원 제70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제70기 경제대학원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OT)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지난 8월 16일(토), 서울 프레스 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제70기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

션」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제70기 신입생과 교수진이 참석했으며, 박정수 경제대학원 원장, 김진원 경제대학원 부원장, 김홍균 ESG경제전공 주임, 곽노선 금융경제학 전공주임, 김윤정 교수, 왕규호 교수, 허준영 교수, 허민철 경제대학원 동문회 회장, 김흥기 동문회 감사가 함께하여 새로 입학한 원우들을 환영했다.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은 전공 안내, 학사 및 수강신청 안내, 조별 및 지도교수와의 대화, 만찬 및 친교의 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신입생들이 경제대학원의 교육과정과 학업 환경을 이해하고 교수진·동문·동료 원우들과 첫 인연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제65회 경제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제 65회 학위수여식〉

지난 8월 19일(화)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 101호에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제65회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명예학위자, 교수진이 함께 참석해 경제대학원을 마치는 뜻깊은 순간을 축하했으며, 박정수 경제대학원 원장과 김진원 경제대학원 부원장, 곽노선 교수, 이윤수 교수, 주하연 교수가 참석하여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하고 학위 수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신임 교원 인터뷰 : 조운호 교수님



(조운호 교수)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에서 2009년에 학사학위 및 2018년 박사학위를 마치고 같

은 해에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Jinan University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교수,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부교수로 활동하다가 올해 좋은 기회로 서강대학교에 부임하게 된 조운호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서강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학생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서강대학교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곳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친분이 있는 서강대 그리고 서강대 출신 교수님들이 계셨고, 연구나 교류를 같이하며 평소에도 서강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보니 겉으로는 조금 무뎡뎡해 보일 수 있지만 (웃음), 수업에 집중하고 묵묵히 임하는 모습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조용한 모범생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니다. 앞으로 강의 시간에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계획이 궁금합니다.

제 연구 분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시경제 전반인데요, 미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아 거시 모형으로 질문에 답을 하는 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과 세금 같은 정책 실험을 모형으로 분석하거나, 가계 소비를 다루면서 소득 충격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소비쿠폰 정책처럼 소득이 갑작스레 늘었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그룹이 반응을 많이 하는지 관심을 두고 있죠. 또 공공금융 쪽에서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다른 노년층의 재산이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충격에 덜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은 노

인빈곤율이 높아서 오히려 노인들이 소득 충격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런 점이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생애주기 모형과 상반되게 연결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주제들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경제학으로 설명을 해보면서 연구의 재미를 더욱 느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현재 맡으신 강의 과목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강의 과목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거시경제학 1과 고급거시경제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학 1은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과목이라 다른 학교나 교수님들의 수업과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학부 수준에서 거시경제학을 가르치다 보면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많고, 실제 사회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한국의 사례를 충분히 들어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학원 기초과목인 고급거시경제학은 학부 수업과 달리 좀 더 수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정량적 거시 경제학(Quantitative Macroeconomics) 연구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방법까지 함께 가르쳐 학생들이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를 뉴질랜드에서 다녔고, 대학은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에 진학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온 좋게 호주 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갔지만,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보다는 운동에 전념했던 터라 대학에 와서는 학업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시절 또래 학생들과 활발히 어울리기보다는 학교와 집, 교회를 오가며 공부에만 몰두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생활비를 위해 조교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20대 시절의 대학생 활과는 거리가 멀었고, 거의 놀아본 기억이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며 '정장이나 셔츠를 입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교수라는 길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그때는 막연한 동경에 불과했고, 실제로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에는 경제학 전공이 호주 노동시장에서 크게 수요가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영주권도 없었던 터라 취업이 쉽지 않아 3~4년 동안 제대로 정착하기가 힘들었고, 2011~12년 무렵에는 호주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크게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이유로 같은 학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웃음).

그렇게 대학원 생활을 이어가던 중 한 학회에서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연설을 하러 온 분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Jim Bullard였는데, 명찰도 없는 박사과정 학생 신분이었던 저는 꽤 기이하게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충분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후에 그의 제자이자 공저자였던 시드니대학교의 Aarti Singh 교수가 다가와 부족했던 부분을 설명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그 인연을 계기로 학문적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논의하며 제가 제안한 여러 생각이 실제 연구로 이어지면서 논문을 출간할 수 있었고, 돌이켜 보면 그때가 연구자로서 네트워크와 역량을 키우는 전환점이었고, 결국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제 연구 경력에 있어서 영혼의 단짝같은 분이십니다.

교육자로서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서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학은 수학으로 표현되는 학문인 만큼 수학적 기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학을 통해 경제 모형을 해석하고 직관을 기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스스로의 재량을 발휘하려면 문제 풀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견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제학 전공을 살리고 싶은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거듭 이야기하지만 경제학은 수학으로 설명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Python이나 Julia와 같은 랭귀지 중 최소한 하나 그리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Stata와 같은 프로그램은 익숙하게 다뤄내는 역량을 학부 때부터 키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삶이 꼭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대 때는 운동에 전념하다가 그 길을 포기했고, 20대에는 호주에서 유학생으로 지내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이 어두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교수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교수가 된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해 두고 매 순간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묵묵히, 전력을 다하려 노력했던 것이 결국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인연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는 지금도 쉽지 않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기회는 결국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는 되어 있어야겠죠. 학생 여러분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자신만의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신임 교원 인터뷰: 이재철 교수님



(이재철 교수)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경제학과 도시경제학,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의 일원이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과 서강대학교 학생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의 심장부와도 같은 위치에 세워진 번듯한 건물을 경제대학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교수자를 굉장히 존경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있는 것 같아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그만큼 열심히 강의와 학생과의 교류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계획이 궁금합니다.

첫째로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제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경을 넘어서 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관련 피해액을 추정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 관련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경제 발전이 얼마나 저해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오고 있습니다. 기온 분포가 더욱 극단적으로 변모해감에 따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이 얼마나 강해지고 그에 따른 미래 예상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들 가운데 일부가 결국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물려 있기에 저 스스로 소개할 때 도시경제학도 관심분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도시경제학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면, 대형마트 의무휴무로 인하여 소비자의

후생에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현재 맡으신 강의 과목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강의 과목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경제학 원론1과 환경경제학 대학원 수업을 강의하고 있고, 다음 2026년 1학기에 학부 환경경제학 수업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환경 쪽을 한 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라는 것이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환경/기후 관련 쟁점들을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여는 경제 원론 수업도, 비록 원론이지만 실제 삶 속의 예시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기 위해 심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매주 '이 주의 질문'을 던지고 각자가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답하는 기회도 가져보고, 간간히 실제 경제 문제를 기반으로 한 단체 게임이나 설문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주전공이 경제학이긴 했는데 경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다른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 전공자가 별로 하지 않는 공부를 해보고 싶어 서어서문학과를 복수 전공했었고 멕시코에 교환학생도 다녀왔었습니다. 학부 말미에는 뮤지컬에 빠져서 뮤지컬 동아리 활동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에 상당히 과감하게 도전해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을 박사까지 하시게 된 계기와 현재 전공을 선택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데 궁금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건, 제가 대학교에 광역계열로 들어가 2학년 때 전공 진입을 할 때, 경제학 전공이 커트라인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몇 안 되는 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도 함께

지망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학년 때 전공진입 과목으로 경제원론 1, 2를 들었는데 모두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에 내가 경제학에 소질이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전공 수업들을 들을 때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방향을 좀 했고, 졸업학점만 잘 맞춰서 졸업 후에 경제학 전공이 아닌 국제대학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주전공과 복수전공 모두를 살려 중남미 경제 관련해 공부를 더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개발경제학 쪽으로 전공을 해보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경제학을 좀 더 진지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발경제학이 주요 전문 분야 중 하나인 UC 버클리의 농업자원경제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막상 입학하고 공부를 해보니 중남미의 경제상황이 내가 한국에서 직접 겪었던 문제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문제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를 다뤄보자는 생각으로 세부 전공을 바꾸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이슈였고 마침 농업자원경제학에서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 중 하나가 환경이기에, 환경경제학을 세부 전공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서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로 각자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면 왜 그것이 하고 싶은지를 잘 살필 것을 주문합니다. 그저 당장 통계를 돌려볼 수 있는 주제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보다, 자신이 진심으로 심대한 문제라 생각하는 연구 주제가 있고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선명할 때 그 연구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기 부여가 이뤄졌을 때, 어려운 연구과정을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수업이나 학생 지도에 있어 ‘현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컨대 수업에서는 현실과 관련된 예시들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학원생을 지도할 때에는 어떤 연구를 하든 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 그 갈등을 줄일 실질적인 단초를 주는 그런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만약 형편이 된다면, 경제학이 아니어도 좋으니 관심분야로 한 번 석사를 가볼 것을 굉장히 권유하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이나 유럽, 영국으로 석사를 가서 해외의 인재들과 함께해보고 또 자신이 공부해보고 싶었던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함께 쌓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자산이 또 어디 있을까 합니다. 데이터 안보 쪽으로 유학을 가볼 수도 있고, 공공 정책이나 경영 쪽으로 공부를 해볼 수도 있으며 데이터 사이언스나 환경, 기후변화, 인구학과 관련된 공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을 더 깊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경제학 전공 기반으로 다른 추가적인 전문 분야가 생긴다면 그 시너지도 분명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흔히 로씨행이라 불리는 그런 진로를 가지 말라거나, 무조건 유학을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컨대 CPA 진로를 택하더라도 환경과 ESG에 대한 지식을 추가적으로 쌓아볼 수도 있고, 로스쿨을 가더라도 국제무역이나 관세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다져볼 수 있으며, 행정 고시 시험을 보게 되더라도 어떤 정책들이 필드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엄밀하게 수행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을 목표로 해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겪는 이슈를 공부하고 갔을 때 임무 수행 능력이 의미있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석사 공부는 꼭 진로가 확정되기 전에 가야하는 것도 아니며,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이후에 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걸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에 마음을 달아두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전환점 중 하나가 석사 공부가 아닌가 합니다.

신임 교원 인터뷰: 신혜선 교수님



(신혜선 교수)

경제학부의 신임 교수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가을학기에 서강대학교에 부임한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Agricultural,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Economics(AEDE)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교수님의 서강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학생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학기 수업을 진행한 지 절반이 넘게 지났는데요,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학업에 임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강대학교 교수님들께서는 AI, ESG 등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내용을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계십니다. 매 수업마다 울리는 종소리처럼 서강대학교만의 전통과 교육 철학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려는 학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이러한 서강대학교와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계획이 궁금합니다.

저의 주요 연구 관심사는 국제무역, 환경경제, 농업경제입니다. 이 분야들은 모두 기후변화라는 큰 주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은 국제 무역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 정책이 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이기에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 농업 생산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경제모형으로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역 정책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이나 토지, 물 등 환경자원 사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현재 맡으신 강의 과목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강의 과목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기 학부 환경경제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제학 수업은 환경이라는 지구가 가진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최적의 정책은 무조건적으로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염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역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경제학 수업에서는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의 오염저감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왜 시장경제에서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지를 배우고, 나아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환경정책들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림자원, 어족자원, 지하광물처럼 한정된 환경자원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환경경제학 같은 수업을 개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대학생 시절 아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때가 아니면 언제 배우겠냐는 생각에 전공과는 관련도 없는 러시아어 공부도 갑자기 해보고, 서양미술사, 공연예술의 이해와 같은 교양과목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학을 가기 위해 들어야 하는 과목들을 미리 차곡차곡 챙겨 듣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석사 때 수학 과목을 챙겨 듣느라 뒤늦게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네덜란드로 한 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나중에 돌아해보니 그때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던 경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학 전공과목만 한 학기에 6개를 듣고 와야 해서 빡빡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혼자 유학을 나가 생활하고, 영어로 경제학 수업을 듣고, 다른 친구들과 수업 내용을 토론하며 같이 공부를 했던 경험이 나중에 박사 공부를 하는 데에도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경제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부 때 전공을 농업자원경제학으로 선택해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일 때는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 농업자원경제학은 또 어떤 학문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대학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수업도 들어보고 경제학 수업도 들어보니 다행스럽게도 제 성향이 경제학과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도 아직도 제가 무언가를 '잘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오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석사 학위를 하러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석사만을 하고 나서도 전문성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또 박사 공부까지 하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석사를 진학할 때만 해도 유학까지 다녀오려는 계획은 없었거든요. 제가 석사 공부를 하던 당시에 유학을 준비하던 선배들과 같은 연구실방을 사용했는데, 선배들 덕분에 같이 유학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학준비를 도와준 선배들에게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서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I 사용이 불과 몇 년 만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대학에서 정말로 배우게 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기본을 잘 익혀야 응용을 잘 할 수 있는 만큼,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공감하게 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쏟는 노력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많이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천천히 구불구불 가는 길이더라도 멀리서 보면 그것이 지름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 합격 수기: CPA



(김경모 학생)

안녕하세요. 제 6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17학번 김경모입니다. 서강경제 뉴스레터에 기고문을 신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처음 회계를 접한 것은 2학년 1학기, 전공 필수과목인 '회계학원론'을 수강하면서였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는 특이하게

회계학원론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당시 성적은 C였지만, 공부를 하면서 회계가 의외로 꽤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고, 이 언어를 이해하면 기업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최근 2025년 노벨경제학상은 스페터 교수님의 창조적 파괴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Philippe Aghion 교수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교수님께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며 경제 성장에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눈,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몇몇 경제학 수업에서는 수험 과정에서 쌓은 회계 지식이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계를 통해 경제를 이해해 보겠다는 제 바람이 조금은 이루어졌다고 느낍니다.

한편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더 필요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제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사일이 고정되는 시험'보다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뒤 방학에는 회계법인에서 일해 보고, 학기 중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필요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삶이 저에게는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 회사와 산업을 직접 체험하며 일할 수 있다는 점도 회계사라는 직업이 주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 일찍 합격을 한다면 교환학생도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사 자격증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합격 이후 창업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도 있지만,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사는 다양한데 진로를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회계사 자격증이 주는 안정감과 선택지의 폭을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과정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20년 7월에 전역했고, 군 복무 중에는 독학학위제를 통해 필요한 학점을 채웠습니다. 카투사로 복무하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넉넉했던 편입니다. 전역 후 2020년 가을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시험을 치렀으나, 큰 점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2021년 가을학기에 다시 휴학을 하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2022년 1차 시험에 합격하여 3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회계학 과목에서 유예 탈락을 했고, 2024년에는 1차 시험에 다시 합격했음에도 2차 시험에서 두 과목이 1점 차로 아쉽게 떨어지며 3.5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25년에 최종 유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법은 다른 합격수기에 잘 나와 있고, 제 경우는 다소 특이한 부분도 있어 자세한 공부법은 생략하고 싶습니다. 대신 공부에 대한 태도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학기와 수험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언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공부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를 충분히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 복무 및 학기 병행 기간에는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생활 리듬과 체력을 잘 관리하시고, 전역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 기본서를 읽긴 했지만 깊게 공부하지는 못했고, 전역 후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첫 시험에서 큰 점수 차이로 떨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회계학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신 끝에, 기본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던 것이 반복된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예생 신분이었지만 올해는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다지게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합격수기는 회계사 학원에도, 교내 커뮤니티

니터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성향, 상황, 심지어 시험의 흐름까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을지, 운동을 어느 정도 할지, 어디에서 공부할지 등은 수기를 참고하되 결국 스스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습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지, 달리기가 전체 공부시간과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점검하기에도 수험 기간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합격수기에 나온 방식이나 “이 과목은 이렇게만 해라”와 같은 조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요소를 취사선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수험 기간 동안 토모관, 스터디카페 등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고, 결과 역시 제각각이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집에서만 공부를 했고, 그 해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 남의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환경과 공부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정해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험 기간 내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바로 “운이 좋을 자격을 갖추자”는 문장입니다.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다면 운이 크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빠른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3년에 회계학 과목에서 유예 탈락을 했고, 2024년에는 2차 시험 두 과목이 1점 차로 떨어지는 아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 길에 맞는 사람인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와 같은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그렇다면 더 압도적인 실력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다만 올해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돌아보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서라기보다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 합격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자신 있는 주제가 나와 주었고, 감사하게도 큰 실수 없이 시험을 마칠 수 있었던 덕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러 불안과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김연아 선수의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매일 하던 습관대로 묵묵히 공부를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운이 좋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공부를 차분히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회계사 수험 기간은 분명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본 경험을 해

보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는 종종 “이 노력이면 유니콘 기업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하곤 했습니다. 앞에서 공부 방법에 관해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업 선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사 시험처럼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한 목표에 쏟을 수 있는 서강인이자라면, 본인이 재능 있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굉장한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 덤벼든 탓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러던 중 운이 좋아 어찌어찌 합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제 직업을 완전히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인가’를 계속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서강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러 직업과 산업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께서 학교에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의 강연과 행사들을 꾸준히 듣다 보면 직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1학년 때부터 이런 강연과 행사를 열심히 들었고, 실제로 직업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우수한 제도과 레저시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발전기금을 통해 학교와 경제학과를 후원해 주신 많은 동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영민 장학금, 삼성KPMG 동문장학금, 동문회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인으로 나아가 서강경제와 서강대학교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응원해 준 서강경제 축구동아리 로카피플 선후배님들, 인피티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학과 17학번 B섹션 친구들, “내년에도, 10주년에도 꼭 엠티 가져!” 마지막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모님과 친척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좋은 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공직 합격 수기: 5급 행정 공채



(최원영 학생)

안녕하십니까. 2025년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22학번 최원영입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뉴스레터에 제 글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수험생활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저의 수험생활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무난했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다른 합격수기에서 본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서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저의 수험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험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5급 공채 시험은 난이도가 높고, 수험 생활이 힘든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너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시험 준비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시작한 직후에는 공부를 낮은 강도로 했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량과 강도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량을 늘려가는 방식이 수험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강한 의지와 성실함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5급 공채 시험은 다양한 과목들이 모두 각각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과목마다 고유한 공부법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목별로 적합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PSAT 시험으로서 3과목(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으로 구성되어있고, 100분 동안 40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려운 킬러 문제를 도전하기 보다는 쉬운 문제를 모두 맞힌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목표하에, 문제 풀이 과정 자체를 시스템화 시켜야 됩니다.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 유형별로 맞춤형 풀이법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2차 시험은 크게 경제학, 행정법, 그리고 논문과목(행정학, 정치학)으로 나뉩니다. 경제학은 대학교의 중간, 기말고사와 비슷한

유형이므로, 경제학과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원과 인강 교재를 많이 풀어보는 정석적인 공부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념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산 실수가 없도록 정확히 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정법 같은 법 과목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암기가 핵심입니다. 난해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 보다는 교재에 적합한 기본 개념, 조문, 그리고 판례를 정확히 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암기를 한 후에는, 법학의 고유한 답안 작성 양식을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법 과목은 유독 답안 양식 준수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논문과목은 공부법이 매우 다양해서 정답은 없지만, 스스로 예시 답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어보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논문과목은 문장력도 중요하고 직관이나 창의력 같은 요소들도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교재나 강의에 지나치게 얽매이기 보다는 다양한 학설이나 정책 사례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스스로의 주장을 세워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각 과목에 적합한 공부법과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급 공채 시험은 수험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자기관리가 부족하면 공부의 효율도 떨어지고 두뇌회전도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그 점이 너무 후회됩니다. 시간 관리는 장, 단기를 나누어서 세우는 것이 좋는데 저는 한달 단위로 전반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하루 단위로 그날의 공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면서 그 주에 공부한 것 중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복습했습니다. “몇시 부터 몇시 까지 무엇을 한다”는 식으로 경직된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할 양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유연성있게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더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 생활 도중에도 항상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하루 한시간 씩 주 5회 이상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이것이 컨디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게임도 공부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유독 심할 때는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공부법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마다 스스로에게 최적화된 공부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부하는 것 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논리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논문 과목인 행정학과 정치학에서는 당연하고, 경제학과 행정법 같은 과목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사고방식이나 그 과목을 이해하는 논리가 존재합니다. 그 논리체계를 잘 살리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어서,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의 불투명한 진로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수험기간 동안의 경험들로 인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험에 합격한 것이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하고 당분간은 이 기쁜 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한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학우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꼭 시험에 합격하시고 공직자로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문 인터뷰: “문학으로 삶을 데우다” - 우찬제(81 경제) 교수의 삶과 이야기



(우찬제 문학평론가 겸 모교 국어국문학 교수)

“물이 끓기 전 마지막 1도, 99도의 힘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시간과 노력이 모여 임계점을 앞둔 순간, 우리는 다음을 향한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번 호 서강옛집은 바로 그 자리, 499호에 썼습니다. 곧 다가올 500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문학평론가 우찬제 (81 경제)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최근 제 70회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고 서강 동문의 인문학적 역량의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서강에서의 첫 발을 경제학도로 내딛고 결국 문학으로 길을 열어 온 그의 삶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천천히 그러나 끝내 깊게 뚫어오르는 99도의 힘을 닮아 있었습니다.”

우 교수님께서서는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문학 평론이라는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970년대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맞던 시기였습니다. 경제학과는 시대를 주도하는 학문으로 주목받고 있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강대 경제학과에 입학했지만, 제 길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본격적으로 문학으로 이끈 것은 서강학보 사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서강학보사에서 3년간 활동하면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깊이 조사하고 소개하는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 과정에서 문학이 사회 구조적 문제부터 인간 내면과 무의식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종합적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학은 복잡다단한 세상을 포괄할 수 있는 학문이었고, 저를 그 안으로 끌어당겼네요. 결국 석사과정 중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 평론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서강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학부 시절을 돌아보면 무엇보다 서강학보 활동이 가장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1학년 때는 학내 취재부, 2학년 때는 문화부, 3학년에는 편집국장을 맡았지요. 이때, 문화면 <창작, 그 아픔의 뒤안길> 코너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가들과 직접 만나 함께 식사나 인터뷰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호승 시인, 김원일 소설가 등 당대의 주요 작가들을 만났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울러 로올라도서관의 개가식 경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4년 개관과 함께 전면 개가식으로 운영된 로올라도서관은, 학생이 직접 서가에 가서 책을 꺼내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폐가식이어서 사서를 거쳐야 책을 볼 수 있었는데, 서강의 개가식 도서관은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이었지만 늘 문학 서가로 향하곤 했네요. (웃음) 당시 자유롭게 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제 삶의 방향도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문학을 평론하는 작업은 ‘읽고 쓰는 일’의 반복일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모든 글은 저마다 특별하게 설계된 고유한 읽기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존재들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듯, 글 역시 그렇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풀어낼 수 있는 행운을 지닌 이들입니다. 이를테면 실연이나 삼각관계처럼 흔한 주제라도, 거기에 3%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문학평론은 바로 그 ‘다름’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자세히 읽고, 깊이 숙고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하려고 노력합니다. 글을 고유하지 않은 것으로 대한다면, 영혼 없이 소비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글만의 무언가가 있음을 믿고, 존중하며 읽어준다면 반드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긴 시간 연구자로서 걸어오신 과정에서 ‘느림’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좀 느린 편입니다. 밥 먹는 것도 늦고, 책 읽는 것도 느리고, 글 쓰는 것도 터디지요. 충청도 출신이라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웃음) 촌철살인의 빠른 평론가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학부 때부터 더 공부한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아니라

늘 후발주자라는 생각을 하니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꼭 속도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경주는 아니더군요. 시골의 농사짓던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늘 소와 쟁기 비유가 떠오릅니다. 넓은 밭을 갈 때 소는 아무리 재촉해도 자기 걸음대로 한 고랑씩 천천히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밭이 다 갈려 있거든요. 제 글쓰기도 그렇습니다. 밭 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묵묵히 써왔습니다. 그 느린 걸음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며, 로올라 도서관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교수님께 도서관장이던 시간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로올라 도서관장직을 8년간 맡았습니다. 로올라 도서관장으로서 보낸 8년은 제게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로올라는 제게 '꿈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지요. 없는 것이라고는 '없음' 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열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을 넘어, 미래 인재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발전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작년 2월 22일, 로올라 도서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기념 표지석 아래에 새긴 메시지도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미래 인재들의 창의 발전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길." 제게 로올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학부생으로 공부하던 시절에도, 도서관장이던 시간에도, 늘 그렇습니다. 8년간의 도서관장 생활은 제 연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 의미가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예술원상 문학 부문을 수상하셨는데, 이상이 교수님의 학문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전의 상들이 특정 작품이나 책을 근거로 주어졌다면, 이번 예술원상은 제 생애 전체의 업적을 바탕으로 평가받은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학평론가로 걸어진 길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오고, 동시에 더 겸손하게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상을 받는 일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시상식에 잘 가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수가 왜 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시상식에 갈 시간이 없다. 나는 또 다른 발명과 실험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하지요. 저 역시 그 말에 공감합니다. 상은 지나온 길의 결과일 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어갈 작업이니까요.

노자의 도덕경에도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을 이루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야만 새로운 글도 나올 수 있고, 작가들도 계속 글을 쓰는 것처럼 평론가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은 저에게 하나의 쉼표라기보다, 더 멀리 나아가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학문적 또는 평론가로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제가 오래 고민해 온 주제는 문학과 인문학의 공공성입니다. 문학이 단순히 텍스트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 인문학의 실천, 생태 비평, 기후 위기, 정의와 환경 문제 같은 담론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태학적 상상력과 녹색 수사학』이라는 책의 집필을 통해 기후 문제를 다루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기후 정리와 생태 비평』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면 은하계 운석 충돌 등 복합적 요인으로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 종, 인간에 의해 새로운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인류 자신을 멸종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제를 더욱 깊이 천착하고, 실천의 영역으로 넓혀 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해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생태 비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후배와 후손들이 조금은 덜 뜨겁고, 여전히 아름다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학의 언어가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교수님께 서강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서강은 제 인생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올해로 45번째 이어지고 있는 인연이지만, 마치 늘 곁에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캐나다 밴쿠버섬을 여행하다가 인상적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울창한 침엽수림 속에서, 큰 소나무가 베어진 자리의 밑동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썩은 밑동 위로 새로운 소나무 씨앗이 날아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더군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어 새로운 생명이 돌아나게 하는 나무, 이른바 ‘너스 트리(Nurse Tree)’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곧 모교 서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강은 작은 학교이지만, 자기 몸을 내어주며 학생 하나하나가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줬지요. 늘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서강의 후배들,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따로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로올라 도서관 현판에 새겨 두었으니까요. 다만 굳이 한마디 덧붙인다면, ‘끝까지 가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AI가 모든 걸 요약해 주는 시대가 됐지만, 저는 여전히 느리게 읽고, 쓰고, 걸어가는 방식을 고집합니다. 돌이켜 보면 교수가 되기 위해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올해로 33년째 전임교수

로서 있더군요. 이번 학기까지 따지면 65번째 방학을 맞았습니다. 늘 방학 때는 ‘내일은 좀 쉬어야지’ 했는데, 어느새 또 개강이 와 있었네요. (웃음)

삶은 소가 쟁기를 끌고 한 고랑씩 밭을 갈듯 묵묵히 나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느리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소중한 진실로 가는 길은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저는 후배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강에서 경제학도로 출발해 문학평론가로 거듭난 우찬제 교수의 여정은 ‘읽고 쓰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정보에 익숙한 우리가 문득 잊고 살았던,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 보는 태도 속에서 그는 서강이라는 뿌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 왔습니다. 서강인에게 서강은 늘 기댈 수 있는 곳이자 또 다른 시작을 가능케 하는 터전임을, 화려하진 않으나 무게있는 그의 통찰의 과정이 다시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글 | 오연지(23 신방) 서강옛집 기자, 서강옛집 담당 이수민(14 수학)
사진 | 우찬제(81 경제)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공



동문 인터뷰: “정책은 사람과 합의에서 완성된다” - 이태희(86 경제)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태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번 서강옛집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정보통신, 방송, 과학기술 정책의 최전선에서 길을 터온 이태희(86 경제) 동문을 만나보았다.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 온 이태희 동문의 오랜 정책 경험과 통찰은, ICT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강 동문이 걸어온 길을 비추고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았다. 이태희 동문은 1992년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후, 통계청,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2022년 6월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직을 퇴임하고 현재는 ICT산업의 전문가로서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태희 동문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서강 동문의 영향력과 잠재성, 그리고 비전을 조명하고자 한다.

선배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86학번 이태희입니다. 저는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후,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발령지는 통계청이었고, 이후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쳤습니다. 2022년 6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정보통신·과학기술 정책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고, 우연이 반복되면 운명이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 제 진로는 완전히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공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로 인해 공공기관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배의 조언을 받아 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1992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통계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정보통신부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 발을 딛은 셈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담당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취업을 준비하던 곳과 사무관으로서 만나게 된 거예요. (웃음) 이렇게 우연히 좋은 기회로 시작했지만, 그 후 계속해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여러 과장, 국장(통신정책국장), 실장(네트워크 정책실장)을 역임하게 되었고, 정보통신분야가 과학분야와 통합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절에는 과학분야인 지식재산정책관, 성과평가국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학창 시절 서강에서 지금도 남아 있는 기억이 있을까요?

서강에서의 가장 큰 기억은 고(故) 박 홍 신부님과과의 인연입니다.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같은 연도에 함께 합격한 박재민(86 정외, 국방부 차관 역임) 학우와 고시반을 도와주던 중, 박 홍 총장님께서 저와 박재민 학우를 총장실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신부님께서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시며 고시반 운영에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60~70만 원 사이라는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실로 엄청난 거금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학교가 좀 더 발전했으면 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서강 출신 공무원이 없으니 내 생각을 이해해 줄 곳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 신부님의 진심은, 서강의 일원으로서 서강을 대표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신부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다 외부교수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주변 대학으로까지 퍼져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덕분에, 그 후로도 서강에서는 꾸준히 매년 2~3명의 합격자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0여 년간의 정책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요?

제가 정책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민영화 작업입니다. 당시 저는 2000년 7월부터 이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고, 민영화 과정에서 다양한 복잡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공모방식 매각, 해외 주식시장 상장, 전략적 투자자 지분 매각, 그리고 국내 매각까지 공직자로서는 경험하기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을 주도했습니다. 힘겨운 2년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없진 않으나, 가장 보람 있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일은 2012년의 방송 디지털 전환입니다. 당시 많은 가정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보고 있었지만, 약 10%의 가정이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고 있었고, 시골에서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보는 가정도 많았기 때문에 일시에 방송을 중단한다는 것이 정부로서도 큰 과제였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디지털 컨버터 보급 사업, 아날로그 케이블 사업자 디지털 방송 지원사업, 디지털TV 보급 사업 등을 통해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을 추진하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정책관실의 총괄과장이었고 디지털전환 담당과와 함께 해당 사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산업계와의 소통 협력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정책의 성패는 결국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 가는 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려면, 먼저 정책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연구반과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정부의 입장을 설득하며 추진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공직 생활 동안 항상 후배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을 정책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들과 합의할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을 찾아라. 그게 현실의 최선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정책 대상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방안보다 실제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정책 대상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높여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후배들에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했던, 저의 신조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ICT·과학기술 정책 환경에서 서강 동문들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서강 동문의 가장 큰 강점은 자타공인 ‘성실성’ 아니겠습니까? ICT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꾸준히 한 분야를 파고드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에서 배운 성실성은 특히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ICT·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은 이미 많은 연구소나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그들이 제대로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이 곧 이 분야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봐 왔던 서강학보의 맨 위를 보면 항상 “서강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서강의 자랑이여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와 함께 “소시민 양성”이라는 문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다소 소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업과 학교 생활에 깊게 몰입하게 했던 서강에서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가 지향했던 인재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서강은 사회와 기업을 지탱할 성실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교육 이념은 지금도 여전히 서강대 출신들에게 강하게 남아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강대 출신은 어디서나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교육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ICT가 사회 전반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후배들이 이 변화 속에서 찾을 역할은 무엇일까요?

ICT와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억지로 찾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하나의 사회 현상,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건,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깊이를 더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선배님이 서강인의 특징인 성실성과 학교 다닐 때부

터 다져진 학습 능력으로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어렵지만, 외국계 국내 플랫폼 기업의 주요 보직에 근무하고 계신 선배님부터 금융계, 언론계, 산업계, 학계 등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의 ICT·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그 과정에서 서강 동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현재 ICT·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AI(인공지능)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인공지능을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예산과 정부 조직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인공지능 정책실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모교인 서강대학교도 이미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AI·SW 대학원과 가상 융합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여 전문 교육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서강 동문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AI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끌어낼 것입니다. 서강 동문만이 가진 특유의 근성있는 성실함과 깊이 있는 학문적 접근은 AI 분야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가올 미래, 머지않아 그 선두에서 있게 될 주니어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후배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3년을 과감히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직업에 대한 관심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 이직도 잦습니다만, 저는 젊은 시절 무엇이든 3년 정도는 투자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의 집중이 결국 30년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3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원이든 자격증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3년 동안 열심히 투자하면 그 경험은 장기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고 인생에 있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3년은 끈기 있게 일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 딸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재의 조언”이라며 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살 가까이를 살아보니, 이 조언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웃음)

이태희 동문의 이력은 ‘작동’과 ‘합의’로 완성된 정책사의 기록이다. KT 민영화, 방송 디지털 전환, 그리고 AI 시대로 이어지는 변곡점마다 이 동문은 대상자 중심의 설계, 차선의 지혜, 성실한 집행을 선택했다. 그의 선택과 행동으로 미루어 보건대, 빠른 변화의 시대일수록 원칙은 단순하다.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실성, 그 힘이야말로 서강 동문이 만들어갈 ICT·과학기술의 내일이 이어질, 서강형 지속가능성의 원천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글 | 서강옛집 오연지(23 신방) 기자, 서강옛집 담당 이수민(14 수학)
사진 | 이태희(86 경제) 동문 제공, 김현우(21 물리) 인턴 촬영



“플랫폼 경제, 교실 밖에서 배우다: 우아한 형제들 본사 탐방기”



〈'우아한형제들' 기업 방문 참여 인원 단체 사진〉

2025년 7월 9일, 본 학과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본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학문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실제 작동 원리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체험할 행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2시간에 걸쳐 기업 소개, 주요 서비스 구조, 배달 알고리즘의 데이터 기반 설계, 소비자 행동 분석, ESG 활동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이론으로만 접했던 플랫폼 경제의 실제 적용 사례를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되었다. 특히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설정 메커니즘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활용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

공식 프로그램 이후에는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전체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행사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참가자들 간의 학술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실무와 연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탐방은 디지털 플랫폼, 알고리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소비자 분석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증적 경험을 제공한 뜻깊은 자리였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에게 앞으로 연구 주제 설정과 논문 구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함께한 학부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각자의 시선으로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학원생들은 관심 분야의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실증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

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아래에는 이들이 직접 전하는 생생한 소감을 소개한다.

◎ 경제학과 23학번 양정운

배달의 민족 기업 방문을 통해 실제 기업 문화를 체험하고, 업계 직원분들 및 교수님들의 다양한 시각과 통찰을 엿볼 기회를 얻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사내 공간에 직접 방문하여 근무 환경을 엿보며 '배달의 민족'이 강조하고자 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험은 향후 제가 직무를 탐색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업 문화가 개인의 직무 수행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기업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체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경험하신 애널리스트의 기업 소개 및 강연도 인상 깊었습니다. 기업 소개 외의 시간에 두 조직의 차이에 관해 설명해 주신 것이 앞으로의 선택과 산업 이해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몸소 경험한 전문가의 시각은 현장의 모습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속한 업황과 산업 정보에 대한 강연도 유익했습니다. 배달 서비스 시장에 대한 회사 내부의 분석을 직접 들을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학부생의 수준에서 얻기 힘든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단편적이고 일정 수준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되는 반면, 회사 내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설명은 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한 견학인 만큼, 교수님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얻은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수업에서 다루는 이론적 내용에, 사회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업 방문이 뜻깊었습니다. 현직자분들의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업의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교수님들의 폭넓은 통찰을 한 자리에서 모두 들을 수 있어 단순 견학 이상의 배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강의실을 넘어, 실제 사회와 산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제학과 23학번 김예령

지난 7월, 배달의 민족 본사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가장 처음으로는 배달의 민족의 사업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배달의 민족은 사회적 비판과 기대가 공존하는 기업이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 문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배민방학도시락' 사업은 나에게 와닿는 게 남달랐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판적인 이미지와 달리, 배달의 민족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후원하는 등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기업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적 비판과 기업의 노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배달의 민족에도 AI 시스템, 과학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상적으로 쓰던 어플리케이션에 배달 기사님과 이용객의 편리함을 위해 어떤 정성을 쏟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에는 배달의 민족 직원 처우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유연한 근무 체계와 회사 분위기는 철저히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확실히 공기업 혹은 금융 기업들의 회사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회사 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상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회의실마다 앞에 적힌 문패에 손글씨로 사람 이름을 따온 회의실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점인데, 초기 직원분들의 자녀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어 만든 문패를 걸어 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회사의 분위기를 잠시 엿볼 수 있어 좋았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엔 교수님들, 현직자 분과 함께하는 점심시간을 가졌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덕분에 현직자분께 배달의 민족의 사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걸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귀중했던 것은 현직자 분과 교수님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통념을 깨는 교수님들의 경제학적 지식이 담긴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야를 제공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의견을 교수님들 앞에서 편하게 말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 그렇게 기업 견학을 마치게 되었다.

산업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실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이번 견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진로를 고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다양한 기업 견학의 기회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교수동정

◎ 퇴임 교원 소식: 김홍균 교수님



〈김홍균 교수〉

김홍균 교수는 1980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하여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뒤 미국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3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에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학부와 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 왔으며 2026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선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재정·자원경제 및 환경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단, 재정개혁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 위원회와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며 정책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였다.

서강대학교에서는 경제학과 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재직하면서 공공정책대학원 환경정책학과 학과장, 경제학과 대학원 학과장, 경제학부 학장 및 경제대학원 원장, 경제대학원 OLP 프로그램 지도교수 및 부원장, 서강시장경제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아 대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환경경제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자원경제학회 부회장, 한국경제신문 TESAT 출제위원, 국가미래연구원 환경부문 간사, 중소기업연구원 자문위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으며,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2012년)과 2015 서강경제대상을 수상하는 등 학문적·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았다.

◎ 김영철 교수 지도 제자 김슬기 동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임용



〈김영철 교수〉

본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지도교수 김영철)를 취득한 김슬기 동문이 국내 대표 교육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다. 김슬기 동문은 2023년 2월 박사학위 취득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캠퍼스(SUNY Buffalo) 교육대학원 소속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재직하며 연구 경력을 쌓아왔다. 앞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에 소속되어 학생·학부모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교육 및 빅데이터 실증분석이다.



〈김윤정 교수〉

◎ 김윤정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과제 선정 및 한국국제금융학회 이사 선임

김윤정 교수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수행되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과제에 선정되어 「달려 강세와

기업 투자에 관한 연구: 자본 리쇼어링 채널」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2025년 9월부로 한국국제금융학회 이사로 선임되어 학회 활동을 통해 국제금융 분야 학문 발전과 정책 논의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정재식 교수〉

◎ 정재식 교수 지도 석사생 취업 및 진학 소식

정재식 교수의 2025년 8월 졸업 지도 제자들이 금융권과 학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였다. 박종현 석사 동문은 8월 나이스평가정보에 입사하였으며, 박

대민 석사 동문은 10월 JB금융지주에 합류하였다. 또한 김재영 석사 동문은 9월 SK AX에 취업하여 경력을 이어가고 있고, 김수연 석사 동문은 9월부터 본교 경제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업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주하연 교수〉

◎ 주하연 교수, 서강대학교 대학평의회 교수평의원 선출

주하연 교수가 제10기 서강대학교 대학평의회 교수평의원(여교수선출단위)으로 선출되었다. 서강대학교 대학평의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및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8장에 근거하여 2007년에 설치된 기구로,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대학현장 제·개정, 대학 교육과정 운영, 대학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학평의회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조교 등 각 구성원 집단을 대표하는 12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년 관련 소식

2025-1학기에는 안태현 교수가 2024.09.01.~2025.08.31. 기간 동안 12개월 연구년을 마쳤으며, 이강오 교수와 허정 교수는 2025.03.01.~2025.08.31. 기간 동안 각각 6개월 연구년을 수행하였다.

한편 2025-2학기 연구년은 김윤정 교수와 이진권 교수가 2025.09.01.~2026.08.31. 기간 동안 12개월 연구년을, 박정수 교수가 2026.03.01.~2026.08.31. 기간 동안 6개월 연구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경제대학 정기세미나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학 연구 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현민우 (2025년 07월 01일)

UC Santa Barbara

“Trapped or Transferred: Skill Constraints and Labor Market Power in the Energy Transition”

Leland Crane (2025년 07월 23일)

Federal Reserve Board

“Is Generative AI Affecting the Labor Market?”

고경웅 (2025년 07월 25일)

Johns Hopkins University

“Resolving the Fiscal Price Puzzle: The Role of General Equilibrium Effects and Sectoral Composition of Government Spending”

도태영 (2025년 08월 27일)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Bargaining over Words? Text Analysis of a Model of Monetary Policy by a Committee”

Hulya Eraslan (2025년 09월 08일)

Rice University

“Reputation and Disagreement in Bargaining with Imperfect Commitment”

한석진 (2025년 09월 09일)

University of Bristol

“Copyright and Competition: Estimating Supply and Demand with Unstructured Data”

윤석현 (2025년 10월 31일)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School of Management

“Inside the Blackbox of Firm Environmental Efforts: Evidence from Emissions Reduction Initiatives”

홍석영 (2025년 11월 07일)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Unified Inference for Predictive Mean and Quantile Regressions via Empirical Likelihood”

노동우 (2025년 11월 10일)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reen Price Pressure”

박성호 (2025년 11월 18일)

KDI School

“Misperceptions and Product Choice: Evidence from a Randomized Trial in Zambia”

Jota Ishikawa (2025년 11월 21일)

Gakushuin University

“Carbon Tax and Border Tax Adjustments with Technology and Location Choices”

윤영로

Wayne State University

“How often do you send reminders about teaching evaluation”

허윤정 (2025년 11월 28일)

Xi'an Jiaotong - Liverpool University

“Family Over Costs? How Controlling Families’ Socioemotional Wealth Shapes Tax Haven Internationalization and Intra-firm Trade”

박근용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Who Gets Screened Out? The Opioid Crisis and Employer Skill Requirements”

마은성

연세대학교

“Tax Cuts by Occupation: Entrepreneurs vs. Workers”

🔴 2025 SRS (Summer Research at Sogang International Conference)

2025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7월 8일에 특강이 개최되었다.

고동야

Osaka University

“On the Welfare Cost of Constrained Female Labor Supply”

김평식

한국조세정책연구원

“Sources of Gender Differentials in Labor Market Outcomes for Low-skilled Workers: Evidence from Indonesia”

조윤희

Jinan University

“How Does Tax and Transfer Progressivity Affect Household Consumption Insurance?”

박진성

KDI School

“Peer Composition, Classroom Environment, and Student Achievement: Evidence from Korea’s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나승훈

Purdue University

“Expectations and the UIP Puzzles when Foresight is Limited”

최규성

KDI

“Included to Be Excluded: Accountability Pressure and Student in Special Education”

임우영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trolled Cursedness”

2025 ESWC Pre-Conference Macro Workshop

2025년 8월 16일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과 거시경제 연구에 대한 교류를 위해 GN 301에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ESWC Pre-Conference
Macro Workshop**

Saturday, August 16th, 2025
GN301, Geppert - Nam Duk Woo Economy Hall, Sogang University

Sponsors: Korea Economic Association, Jiam Nam Duck-Woo Economic Research, College of Economics at Sogang University, and BK21 Research Group

Organized by: Minsu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 Hee Kwak, and Yoonsoo Lee (Sogang University)

PROGRAM

09:20 AM - 09:30 AM	Opening Remarks	Jungsoo Park (Dean, Sogang University)
Morning Session		
09:30 AM - 10:15 AM	"Changing Jobs to Fight Inflation: Labor Market Reactions to Inflationary Shocks"	Gorkem Bostanci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0:15 AM - 10:35 AM	Coffee Break	
10:35 AM - 11:20 AM	"On Markups and Borrowing Constraints"	Andrés Bellofatto (University of Queensland)
11:20 AM - 12:05 PM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Cash Transfers: Evidence from Brazil"	Wataru Miyamoto (University of Hong Kong)
12:05 PM - 1:40 PM	Lunch	
Afternoon Session		
1:40 PM - 2:25 PM	"Taxing Consumption in Unequal Economies"	Patrick Macnamara (University of Manchester)
2:25 PM - 3:10 PM	"How Does Tax and Transfer Progressivity Affect Household Consumption Insurance?"	Yunho (Simon) Cho (Sogang University)
3:10 PM - 3:40 PM	Coffee Break	
3:40 PM - 4:50 PM Plenary Session	"Manager Pay Inequality and Market Power"	Jan Eeckhout (Pompeu Fabra University, ICREA-UPF, BSE)
5:30 PM -	Conference Dinner (Invited)	

경제학과 단신

2025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선발

- 가. 목적 :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강 경제의 교육 수월성 제고
- 나. 선정 기준
- 2학기 이상
 - CGPA 3.3 이상
 - 경제학원론I, II, 경제통계학, 경제수리기초를 모두 이수하고 세 과목에서 B⁺ 이상의 학점을 취득
- 다. 선발 일정 : 26년 1월 선발 예정

2025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선정자

- 가. 이론경제학 : 강현구(24), 고재민(22), 김용록(20), 왕필환(20), 이수현(22)
- 나. 재무경제학 : 김대호(21), 김재준(22), 문수혁(23), 이석희(20), 이장원(23)

2025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완수자

- 가. 이론경제학 : 이시영(20)
- 나. 재무경제학 : -

경제학부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선발

- 가. 선발기준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성적(CGPA) 3.7 이상 학생
- 나. 선발인원 : 34명(학기별 등록생의 5% 내외)
- 다. 지급방식 : 10/28(화) GN511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1학기 Dean's List 수여식 행사를 통해 증서와 상품(보조배터리) 배부

경제대학 동문회 장학생 선발

- 가. 장학생 선발 기준
- Dean's List에 선발된 직전 학기 3학기~7학기생 중 학기별 성적 상위 2명씩
- 나. 선발인원 : 10명
- 다. 장학금 : 1,000만 원 (인당 100만 원)
- 라. 장학금 기부자 : 경제대학 동문회



경제대학원 소식

제65회 학위수여식 개최

- 가. 일시 : 2025년 8월 19일(화) 16:00
- 나. 장소 :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101호
- 다. 학위수여자 : 총 69명

전공	인원
공공의회노동경제전공	1
국제경제전공	7
금융경제전공	23
부동산경제전공	13
인공지능경제	2
ESG경제	23
합계	56

2025학년도 후기(70기) 신입생 등록 현황

- 가. 지원 95명
- 나. 합격 82명(추가합격 포함)
- 다. 최종 등록 : 61명(신입생 61명)

70기 신입생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 가. 일시 : 2025년 8월 16일(토) 17:00
- 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 다. 참석인원 : 총 110여명(신입생, 재학생, 교수, 직원 등)

2025학년도 전기 학생모집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학과	모집과정	모집인원	세부전공	이수기간(수업연한)
경제학	석사	연간 140명	일반경제(금융경제, 국제경제, 공공의회노동경제)	2년 6개월(5학기)
			인공지능경제	2년(4학기)
			부동산경제	
			ESG경제	

※ 일반경제의 세부전공 신청은 3학기에 신청함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6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정 포함)	비고	비고
원서접수	2025.10.21(화)~ 2025.11.4(화)	2025.11.24(월)~ 2025.12.2(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	인터넷으로만 접수 [* 전형료 : 80,000원]
서류제출 (우편접수)	2025.11.5(수) 17:00까지	2025.12.3(수) 17:00까지	경제대학원 행정팀 (주소: 서류 제출처 참고)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기한 내 미도착 시 서류 접수 0점 처리됨)
전형일시	2025.11.12(수) 18:30	2025.12.10(수) 18:30	비대면(ZOOM) 면접	면접 전형 전 ZOOM 접속 주소 문자 통지 (불가피한 사정의 수험생은 대면 면접 가능)
합격자 발표	2025.11.19(수) 15:00	2025.12.17(수) 15:00	경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econ.sogang.ac.kr)	본 대학원 홈페이지 내 "경제대학원 공지"
등록금 납부	2026년 1월 초 예정		고지서 상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상세 일정 추후 공지 (기한 내 미등록 시 입학 포기 간주)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6. 2. 6(금) 예정		추후 공지	교육 과정의 일부이므로 반드시 참석요망

※ 본 전형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프로그램 전형과 별개임.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경제대학원 OLP 27기 수료식 개최



지난 6월 19일(목) Opinion Leaders Program (OLP) 27기 수료식이 본교 계페르트남덕우경제관 1층 101호에서 진행되었다. 박정수 경제대학원장, 김홍균, 이윤수, 허준영 경제대학원 교수, 손영득 OLC 회장, 그리고 민원표 OLC 사무총장이 27기 수료식에 참석하였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LP-ESG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협력으로 언론인들과 기업인들의 경제 재교육을 위하여 2002년 9월에 개설되었으며, 27기에서 33명이 수료하여 현재까지 총 1,14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이날 참석한 수료생들에게는 한 학기에 결실을 담은 수료패가 수여되었으며, 특히 성실한 참여가 돋보이는 원우와 운영과정에 공로가 큰 원우에 대한 특별 시상도 뒤따랐다. 또한, OLP 27기 자치회(신명식 회장)에서 본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27기 신명식 회장은 박정수 경제대학원장에게 발전기금 기증서를 전달하였고, 서강학과 후학 양성에 뜻을 함께 하였다.

이날 수료한 27기 원우들은 매주 목요일 정규 강의 및 합숙 세미나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던 한 학기를 되돌아보며, 수료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갈 것을 약속하였다. 향후 OLC 정회원이 되어 주기적으로 OLP Journal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OLP-ESG 최고위과정 소개

OLP-ESG 최고위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동문동정

- 김순구(경제대학원 석사) 동문, 충북개발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

2025년 9월 21일 충북개발공사는 김순구 동문(모교 경제대학원 부동산경제 석사과정 수료)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동문은 9월 예정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지명되었다. 김순구 동문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부동산 경제 분야 전문가다. 1992년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 노조위원장을 맡았으며, 2000년 감정평가사 11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2014년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를 역임했고, 2017년에는 서강대학교 부동산경제 석사과정을 마치는 한편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과 이용득·김두관·이동섭 국회의원 정책특보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같은 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을 맡는 등,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 김현석(90 경제) 동문, 관세청 국제조사과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은 지난 9월 25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으며, 이 인사에서 김현석 동문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에 보임되었다. 김현석 동문은 모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90학번으로 입학해, 이후 행정고시 49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관세청에서 관세청장 비서관,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서울세관 심사2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관세청 국제조사과 근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아왔다. 2025년 9월 25일자 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직책을 맡게 되었다.

- 장연성(95 경제) 동문, 한화오션 CFO로 선임

지난 11월 12일, 한화오션은 장연성 동문을 신임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장 동문은 11월 1일자로 재무실장(전무)에 발령받아 CFO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화오션 금융담당 시절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을 이끌며 현지 투자 구조를 직접 챙겨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 운용과 연결 재무 전략을 총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연성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 95학번으로 입학해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주)한화 지원부문 재무 부서, 한화건설 금융기획팀장, 한화오션 금융 담당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재무실장 전무로 승진했다. 한화그룹 내에서 실무 중심의 금융·기획 라인을 밟아온 인물로, 부채 해소와 조선업 호황에 따른 한화오션의 재무 구조 안정과 실적 회복세 속에서, 글로벌 확장과 미국 사업 확대를 이끌 '운용형 CFO'로서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대학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대학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대학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경제대학,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25.03.01.~2025.8.31)

학과 동문 유경윤 (경제 05), 김상수 (경제 81), 문용호 (경제 98, 대학원 경제학과 02), 정진화 (경제 96, 대학원 경제학과 00/09)

교직원 오상현, 김준석, 김종화

서강의 벗 (주)하나에너지 (OLP 27기)

대학원 G-EnH 21기 원우회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